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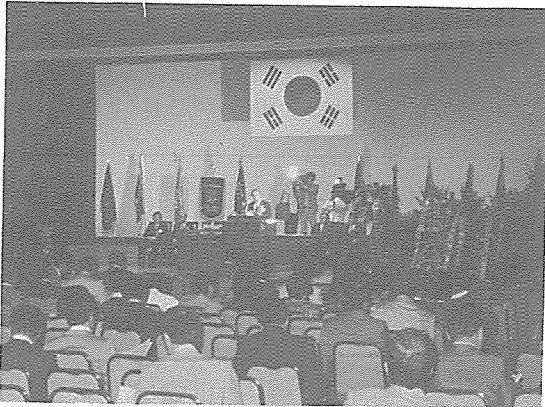
학술분야소식

치협 제 38 차 정기대의원 총회 4월 8일 유성(대전)에서 개최 예정

齒協은 제 38 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오는 4월 8일(土) 大田市 유성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齒協은 당초 의장단 및 지부장들과 협의,비용 및 시간절약을 위해 대의원총회와 제 14 차 아태회의를 잇달아 치르기로 하고 총회일자를 아태회의 개막 전날인 4월 25일로 잡았으나 큰 행사를 한꺼번에 준비하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여론에 따라 28일 지부장회의에서 이같이 일자를 조정 한바있다.

齒協은 선거가 없는해에는 지방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관례에 따라 대전지부 창립을 기념한다는 뜻에서 유성에서 개최기로 한것이다.



1989년도 치과의사 984명 탄생 수석합격에 조선대치대 김관순양 차지

금년도에 9백 84명의 치과의사가 탄생하게 됐다.

국립보건원이 25일 발표한바에 따르면 제 41회 치과의사국가시험에서 1천 47명의 원서접수자중 1천 34명이 응시, 그중 95.16%인 9백 84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응시자 9백 12명중 9백 2명이 합격, 98.9%의 합격율을 보였고 최근 몇년간 합

격율이 98%를 상회했으나 금년에 이처럼 합격율이 떨어진것은 시험문제가 까다로왔기 보다는 실력이 떨어지는 해의 유학생들이 대개 응시,불합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금년도 치의국시에는 해외유학생 38명이 응시, 18명만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도 국가시험에서는 조선치대 김관순양이 3백 20점만점에 2백 83.90점을 얻어 수석을 차지했다.

국민구강보건연구소 제 1 차 정기총회

국민구강보건연구소(소장:金鍾培)는 지난 달 28일 반도유스호스텔에서 제1차 정기 총회를 갖고 5천 86만원의 올회기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는 한편 구강보건기술개발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정기총회는 회무보고, 감사보고, 2천 41만 4천원의 결산안등을 승인하고 △도시상수도 불소화사업 효과평가 △구강보건인력 활용방안 연구 △구강환경관리심포지움 개최 △구강진료보조원제도 개발등 1989년도 사업계획과 기술연구용역비 3천 9백 30만원등 5천 86만 3천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국민구강보건연구소 제 1 차 정기 총회 지난 달 28일 열려 구강보건기술개발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제3차 전국 구강진단학 및 내과학 교수 협의회 개최

대한 구강내과학회 (회장·정성창)는 지난 14,15일 양일간에 걸쳐 강남구 소재 Green Grass Hotel에서 제3차 전국치대 구강진단 구강내과학 교수협의회 후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승우, 정성창, 김영구(서울치대), 김종열, 정성철(연세치대) 고명연(부산치대), 신금백(전북치대), 한경수(원광치대), 최재갑(경북치대), 기우천(전남치대), 김기석등 모두 11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강진단, 구강내과학 교과과정 확정 및 학습목표 설정 △전국치대병원 진단차트 통일방안 △치과 Journal 공동구입 각대학 연구 논문 정보교환에 관해 토의했다.



〈지난 14,15 양일간 개최된 제3차 전국치대 구강진단·구강내과학교수협의회 후반기 워크숍이 실시됐다〉

전국치과대학장협의회 제2차 치의학 교육 워크숍

전국치과대학장협회 (회장·김명국)는 지난 10,11일 양일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10개치과대학 교육과정개발」이란 주제로 제2회 치과교육워크숍을 개최했다.

치과대학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고 기

초치의학교육의 적정기준설정방안 모색을 위해 10개치과대학장, 교무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김광남교수(서울치대)는(치과대학 교육목표설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치과대학과 국내 10개치과대학의 교육 목적을 비교 검토했다.

김철위교수(서울대)는 「기초치의학교육의 목적, 시기, 시간수 및 교육내용」의 발표에서 10개치대의 기초치의학교실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대학간 기초치의학교과목별 시간, 학점분포를 비교했다.

둘째날 고재승교수(서울치대)는 「기초치의학 교육의 개선방안」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해 6,7월 서울치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기초치의학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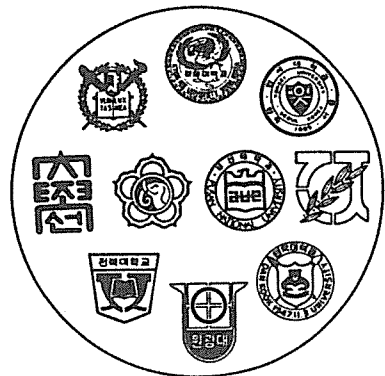
전국치과대학장협의회

제2회 치과 교육 워크숍

주제 : 10개 치과대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워크숍(I)

분과주제(I) : 우리나라 치과대학의 교육목적 및 목표설정

분과주제(II) : 우리나라 치과대학 기초치의학교육의 적정한 기준설정방안 모색



일시 : 1989년 2월 10~11일(금,토)

장소 : 유 성 리 베 라 호 텔

주최 : 전국치과대학장협의회

인제대학 치과학교실 주관 89년 임상강의 일정

仁濟醫大 백병원 치과학교실은 지난 8년 간에 이어 올해(1989년)에도 다음 일정에 따라 「Postgraduate Clinical Dental Refresh Course」를 실시한다.

월일	연	제	연	자
2.17	Bracket positioning	교정학	박인출	박사
2.24	Anchorage preparation			
3. 3	Canine & Incisor retraction			
3.10	Finishing arch wire			
3.17	Case study & discussion			
3.24	국소의치 설계의 기본원리	국소의치	김광남	교수
3.31	회전삽입로를 이용한 국소 의치의 기본설계	학		
4. 7	악관절기능장애의 교합치료			
4.14	Precision attachment 국소의치			
4.21	개원의를 위한 교합학 및 반조절성 교합기			
4.28	Some considerations of daily Dental X-ray examination	방사선	Fujiki (ASAHI 치대)	
5.19	임상의를 위한 근관치료술 식			
5.26	근관치료의 성공과 실패	근관치료	이승중	교수
6. 2	근관치료를 위한 하악대구 치의 마취	학		
6. 9	초음파치로기의 활용			
6.16	도제전장관의 지대치형성법	금판가공	이근우	교수
6.23	도제전장관의 심미적치료	계속		
6.30	도제수복물의 파절원인 및 수리법	의치학		
9. 1	교정치료에 대한 기본개념			
9. 8	두개계측 분석법 (I)	교정학	오성진	선생
9.22	두개계측 분석법 (II)			
9.29	교정장치의 시술			
10. 6	교정학에 있어서 컴퓨터의 응용			
10.13	Anatomic landmarks and Edentulous mouth preparation	총의치학	김영수	교수
10.20	Overdenture 의 모든 것			
10.27	치과 Implant 연구 10년			
11. 3	Metal Base Denture			

월일	연	제	연	자
11.10	Osseointegration VS fibroosseointegration	구강 병리학	임창윤	교수
11.17	구강내연조직의 수포성질환			
11.24	Biopsy 와 Slide Conference			
12. 1	전신질환을 동반한 치과환자의 관리	구강 외과학	강효식	교수
12. 8	소구강외과수술 술식 토론회			

5개 치과대학에서 1988년도 치의학박사 44명 및 10개대서 석사학위 수여자 163명 배출

올해 서울·경희·연세·조선·경북등 5개 대학에서 44명의 치의학박사와 서울·경희·연세·조선·경북·부산·전남·전북·원광·단국등 10개대학에서 1백 63명의 치의학석사가 배출되었다.

5개대학의 치의학박사학위 예정자는 서울대 15명 경희대 13명, 연세대 8명, 조선대 7명 경북대 1명등 44명이고, 치의학석사학위 예정자는 서울대 41명, 경희대 13명, 연세대 17명, 조선대 12명, 경북대 25명, 부산대 13명, 전남대 10명, 전북대 10명, 원광대 11명, 단국대 6명등 1백 63명이다.

전국 5개대학의 치의학박사 학위 예정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맹형열 명제근(이상 보존학)김희준 송은섭(이상 구강외과학) 김신(소아치과학) 강창권(치주학) 이강희·김선해·이태준(이상교정학) 이천구(구강병리학) 김진범 안진구(이상 예방치과학)·이인학(재료학) 방용호(치과약리학) 김진규(구강 미생물학)

△경희=박봉기(예방치과학) 이영식 박연홍 최기운(이상보존학) 민원기(치주학) 안의영 송요선 구중희(이상교정학) 임호남(보철학) 김광철(소아치과학) 유동목 양영환(이상구강외과학) 김광혁(구강해부학)

△연세=김상환·이숙아(이상치주학)김영수 김지학 김해근 박창준(이상 구강병리학) 최성

연 (치과방사선학) 황인성 (소아치과학)

△조선=조호현 김청규 (이상보철학) 김형일
장기영 (이상교정학) 설창환 (구강외과학) 강
기봉 (구강병리학) 조대희 (치과방사선학)

△경북=김상호 (구강외과학)

대한치과기재학회 / 대한치과보철학회

공동학술강연 회성료

대한치과기재학회와 대한치과보철학회의 공동 학
술강연회가 지난달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성료
되었다.

이날 약 300여명의 양학회 회원이 참석한가운
데 열린 동 강연회는 일본 동경의과치과대학 보철
과 “아이 미노루” 교수의 “국소의치의 문제점과
그 대책”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들었으며, 동
연자는 “결손치열의 방치로 인한 구강환경의 악
화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그에 대처해야 되는 것이 현실에서의 치과의사의
임무”라는 점을 전제, “구체적으로 치주조직이
나 악점막, 악골의 기능적 자극과 생물화학적 자
극에 대응할 수 있는 국소의치를 제작하는 문제점
과 대책”을 강연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
았다.

특히 이날 강연회는 소요경비 일체를 치과의료
용 기자재 생산업체인 일본의 G-C 치과공업주식
회사와 한국내 대리점인 (주)G-C 코리아가 전
액 후원하여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적극적인 관심
을 받았으며, 이에 양학회는 G-C 치과공업주식
회사의 “나까오 마코토” 사장에게 특별히 감사패



〈치과보철·치과기재학회 공동학술강연 장면〉

를 수여 했는데 이날 강연회와 병행된 G-C의
신제품 소개 (G-C 치과공업주식회사 기술부장)
와 G-C의 기자재 전시회도 높은 관심을 모았다.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집담회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姜九漢)에서는 지난 16일
서울대치대 제1세미나실에서 2월 학술집담회
를 개최하였다. 이날 교정학분야 개원의,수련의
를 비롯 다수회원이 참석, 경희대 치대 鄭圭林
교수의 “상악골의 전방전인”에 대한 강연 내
용을 관심있게 들었다. 다음 강연내용을 요약
한것이다.

상악골이 열성장하여 발생하는 제3급 부정교
합환자의 치료는 정상적인 하악에 대한 성장억
제 보다는 비정상적인 상악골의 전방전인을 도
모하여 상악골의 전방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악골
관계의 개선 및 심미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
직하다.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에서 상악골의
전방전인력은 짧은 시간내에 상악골 주변의
suture area에 물리적인 이개력을 발생시켜
suture간 결체조직섬유가 늘어나며 늘어난 결체
조직섬유를 따라 새로운 골침착이 발생되며 그
후 생물학적인 정상평형유지 상태가 달성됨이
입증되었다. 실제 임상에서 상악골의 전방전인
은 상악골의 전방성장발육이 지연된 환자나 외
과적으로 수술된 cleft 환자에서 적응증이 되며,
상악골의 전방전인방법에는 chin cap을 이용하
는 방법, facial mask를 이용하는 방법, 두개골
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구강내의 치아교정
방법 에는 rapid palatal expansion 장치,
labiolingual 장치, 가철성 교정장치, 고정성교
정장치를 사용할수 있다. 상악골의 전방전인은
가능한한 어린연령에서 시행함이 바람직 하나
suture의 성장과 adaptability가 존재하고 있는
시기에서는 시행할수있다.

상악골전방전인을 조기에 시행할때는 보다 좋
은 정상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며 가능한 많은
양의 상악골 전방유도가 가능하며, 교합관계 개
선과 악관절 장애를 예방할수 있으며, 심미성의
개선으로 정상적인 정서 발육을 유도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악골 전방전인력의 구강내 적용

점으로는 전치부위, 소구치부위, 제1대구치 부위에서 적용될수 있는데 임상연구에 의하면 제1대구치부위에서의 견인은 상악골의 counter clockwise 회전, 상악구치의 extrusion, 하악골의 clockwise 회전이 발생되므로 전하안면부 고경이 큰 환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상악골 전방견인력의 방향은 교합평면과 평행방향, 교합평면에 대한 전하방 방향, 구개평면 5mm 상방에서 구개평면의 평행방향 등이 있으나 성장의 자연적인 방향과의 조화를 이루며 성장 pattern 및 견인 방향에 따른 상악골의 회전중심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상악골 전방견인력의 크기는 양측합산으로 400gm에서 2718gm까지 다양하나 1000-1500gm이 추천되며 1일 견인시간도 14-16시간 사용을 추천할수 있으나 환자의 협조도에 따라 변화될수 있다.

상악골의 전방견인시 lip pad나 buccal shield를 첨가함으로써 근육의 작용으로 야기되는 압력을 억제시켜 성장중인 치조골을 보호시켜 줌으로써 apical base의 골형성을 자극하여 전돌시킨 상악골의 위치유지와 하악골에 대한 상악골의 적합을 도울수 있다. 상악골의 전방견인은 상악골의 성장이 촉진되고, 상악골이 pterygoid process로 부터 분리되고 maxillary tuberosity 상에서 골형성이 증가되어 상악골내의 구치부치근을 위한 공간이 확대되며, 제1대구치의 근심 이동 및 치축경사가 발생하며, chin에 가해지는 힘에 의한 하악골의 성장억제와 성장방향전환이 유도되며, 상악전치의 순축경사와 하악전치의 설축경사등의 결과를 얻을수 있다.

따라서 제3급 부정교합의 25%정도를 차지하는 상악골의 열성장에 의한 3급 부정교합 환자의 치료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목적에 알맞는 상악골의 전방견인 방법을 선택하여 상악골의 전방성장을 유도하는 치료를 해 줌으로써 악골관계개선 및 정상적인 교합관계가 달성되는 효과적인 치료결과를 얻을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악안면 보철학(Maxillo-facial prosthetics)

고 소 언 치과의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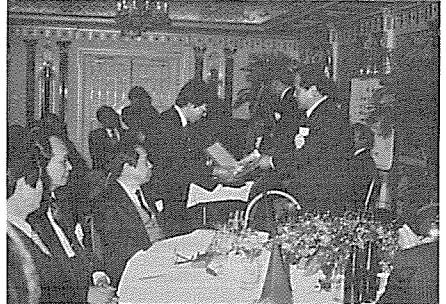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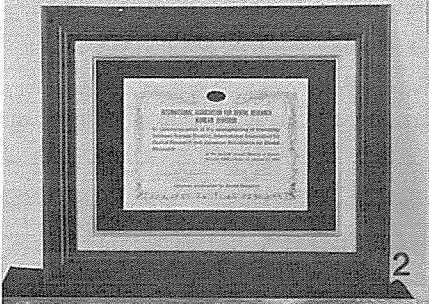
본문은 대한 소아치과학회 제26회(11.20) 학술 집담회에서 고소언 박사가 강연한 "악안면 보철학"에 대한 내용을 초록한 것이다.

악안면 보철학이란 레진이나 실리콘등과 같은 non-living tissue를 이용해서 언청이와 같은 선천적 기형, 자동차나 총상등에 의한 사고와 종양으로 인해서 구개(palate)나 눈, 코, 귀등 얼굴의 일부가 상실 되었을때 해부학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재회복 시켜주는 학문입니다. 구강내에서 구개(palate)에 조그만 구멍 하나라도 있으면 비강(Nasal cavity)과 구강(oral cavity)이 연결되어 언어장애가 나타나고 음식 특히 음료의 섭취에 불편이 있습니다. 악안면 보철 의사는 언청이 환자를 위해서 간단한 plate나 speech appliance를 만들어 줄수 있고 종양으로 인해 구개면이 손상 당했을 경우는 대개 구개면의 반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때는 obturator란 장치를 만들어 넣어 주게 됩니다. 종양 환자 특히 치아부위에 방사선 치료가 직접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는 반드시 방사선 치료전에 치과에서 scaling 및 충치 치료등을 받는것이 osteoradionecrosis를 막아 줄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순히 안구에 손상을 입어 상실되었을때는 비교적 간단히 처치 될수 있으나 안구를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주위 조직이 상실된 경우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실리콘등을 이용해서 만들어 줍니다. 코나 귀 부분의 경우 성형 의과적 처치가 바람직 하나 환자의 경제 상태와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악안면 보철학적 치료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코나 cleft lip을 성형수술 할때는 Nasal stent라는 장치를 만들어 콧구멍에 넣어 줌으로서 콧구멍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줄수 있습니다.

IADR한국지부 제 7 차 학술대회 및 제 5 회 정기총회 화보



1. <IADR韓國支部會 學術大會를 축하하는 牌을 JADR의 Ohashi會長으로부터 梁源植會長이 건네받아 쳐들어 보이고 있다>
2. <JADR로부터 건네받은 友好的 內容의 牌>
3. <開會式上에서의 內賓, 歷代 IADR 韓國支部會會長, JADR會長團>
4. <梁在鎬學術理事의 學術大會宣言>
5. <總會에서 鄭鍾平總務理事의 會務報告>
6. <監事 李在賢學長의 監查報告>
7. <閔炳武 第1回 凡湖新人學術賞 受賞者의 受賞光景>
8. <次期會長(1990年)當選者 林昌潤教授의 當選所感 披露>
9. <포스터展 光景>